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 업체 적발

중국산 혼합 690톤, 국내산 100%로 속여... 업체 대표·직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둔갑 판매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61)는 직원 B씨(54)와 공모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내산에 비해 값이 저렴한 중국산 건고추와 중국산 고추양념

(향신료조제품)을 국내산과 혼합해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해 전국의 김치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31개소에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690톤(시가 10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농관원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중국산 구입내역을 숨기기 위해 일료 수불부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적발 이후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

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고춧가루 173톤(시가 30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다며 구속된 이유를 밝혔다. 전북농관원 문태섭 지원장은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은 10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22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역량 결집을 위한 '전북농협 2022년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 한해 사업방향 제시·역량 결집

전북농협, 신년 업무보고회... 스마트농업 등 추진계획 토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0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22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역량 결집을 위한 '전북농협 2022년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농협 임직원과 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전북농협의 주요성과와 개선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스마트 농업 ▲디지털 유통 ▲지자체 협력 ▲ESG경영 ▲농·축협 경쟁력 ▲농업인 소득

증대 등 총 6개 부문에 걸친 20개의 핵심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 후 상호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 주요 핵심사업은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보급 확대 ▲산지 온라인 사업 고도화 ▲고형차량기 부제 선제적 농정활동 추진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벼 신 품종 개발·육성 ▲드문모심기 확대 등으로 미래 농

업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날 핵심사업 추진결의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 농협 윤리경영 기본 방침을 되새기며 청렴하고 투명한 전북농협, 신뢰받는 전북농협 구현을 다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스마트·비대면 사업 환경과 ESG·탄소중립 가속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야 한다"면서 "전북농협이 농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호밀 종자 신청접수

봄 파종용으로 25일까지

전국 시군농기센터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희수)은 2020년산 호밀 보급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전지역을 포함한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를 통해 춘파용 호밀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2020년도에 생산되어 종자 검사에 합격한 곡우 호밀 보급종 30톤이며, 전량 미소독으로 공급된다.

2020년산 호밀 외에 2021년산 보리, 밀, 호밀은 전량이 소진되어 공급 물량이 없다.

아울러, 신청한 종자는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산 보급종 곡우 호밀의 공급가격은 20kg 당 3만9,440원이다.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 사항이나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63-530-3620) 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류 춘파와 재배 시 유의사항 및 품종 특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정읍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함에 따라, 10일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이 시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읍 종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시 발생

AI 확산 않도록 차단방역 나서야

전북농협, 비상방역대책회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정읍 정우면 종오리 농장에서 전북 지역 두 번째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10일 비상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재호 본부장은 가금농가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축협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가금조합원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도·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차

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발생지 방역대(3~10km) 가금농가 소속에 축협 공동방역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농협이 보유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길 저명한 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조기 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차단방역을 위해 서부권 축협 가금조합원을 대상으로 생석회 12톤과 방역복 3,000벌을 지원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지적재조사 공동수행

민간 파트너와 동반성장

'책임수행기관 지정' LX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지적재조사를 공동수행 할 민간 파트너와 동반성장을 견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상방안으로 LX공사를 지난해 9월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2022년 사업실시계획을 빠르게 수립해 사업 조기착수에 팔을 걷었다.

LX공사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촉량·조사를 함께 수행할 지적재조사 대행자 공모결과 전국 2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역대 최고인 120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 최종 102개 업체를 선정했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민간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공고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총 120개 업체(179팀)가 참여했고 약 1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간 참여 확대의 신호탄을 쏘는 분위기다.

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한 것이며,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공정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LX공사는 민간업체에 촉량 S/W(약 38억 원) 무상지원, 기술공유와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 표준화를 위해 공무원, 책임수행기관대행자 편으로 지적재조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업체와 동반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물론 대행자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 사업 안정화와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중이지도도를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 /최대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설 성수품

가격 일일 점검 제때 조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16개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해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발표한 '실생활 안정 대책'과 관련해 기재부 직인생애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는 "성수품 이외에 유가 등 원자재,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 등을 적극 모니터링 해 물가 파급 영향을 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도 각별히 모니터링 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오미크론 확산 및 주요 2개국(G2) 디플레이션 등 상황 속에서 부정적 파급은 최소화하면서 기회요인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내적으로는 방역은 제어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은 덜어주고 내수·수출은 진작하되 물가는 관리하면서 정책 상충은 제거해야 하는 복합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생산한 의결을 모으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1~2월 중 5대 그룹과의 간담회,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과 물가·수출 현장 방문 기회 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고객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객 필요정보 맞춤형 제공

전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은행장 서한국)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고객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져있는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며 고객의 재무현황 및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북은행의 모바일 뱅킹 'JB뱅크'에서 이용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JB뱅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

고 진단하는 '나의자산' 서비스와 고객의 주요 금융업종을 관리해주는 '금융 캘린더' 서비스 내 신용점수를 바로 확인하는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전북은행 박주원 디지털전략부장은 "JB뱅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생활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최근 구축한 JB뱅크의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허브 활용으로 고도화된 고객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고객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방해를 입은 감자재배 비닐하우스 모습.

하우스 감자 저온 피해 대비를

농진청 "하우스 입구 비닐 커튼 닫아 보온해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겨울철 하우스에서 감자를 재배할 때 저온과 폭설에 대비해 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10일 당부했다.

하우스에 심은 감자는 썩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줄기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1~2월에 저온 및 폭설 피해를 보기 쉽다.

하우스 내 평균 온도가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자 생장이 늦어지고 잎이 변색된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된 잎과 줄기가 얼어 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중 수막재배와 열풍기를 이용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고, 밤에는

하우스 입구의 비닐 커튼을 닫아 보온한다.

또한 폭설이 쏟아지면 하우스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눈이 쌓이지 않게 쓸어내린다. 눈이 녹아 찬물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면 습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우스 바깥의 배수로를 정비한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는 연동하우스 재배를 피하고, 오래된 하우스의 경우 지주대를 세워 골조를 미리 보강한다.

농진청 고품질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고품질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을 저온, 폭설 피해를 입지 않도록 1~2월 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수산 식품기업 바우처' 참여업체 모집

aT공사, 1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중소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16일까지 '2022년 수산 식품기업 바우처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 식품기업 바우처사업은 중소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해외시

장조사 ▲수출실무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검사 ▲국제인증 취득 ▲유망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등 18개 사업 분야에 대한 바우처를 기업당 5,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수산수출부(061-931-0854)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